

# 주유소 기름값 꺾였지만... 중동전 악화 '조마조마'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픈넷에 따르면 3월16일 전국 평균 L당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837원이다. 서울의 경우 L당 1863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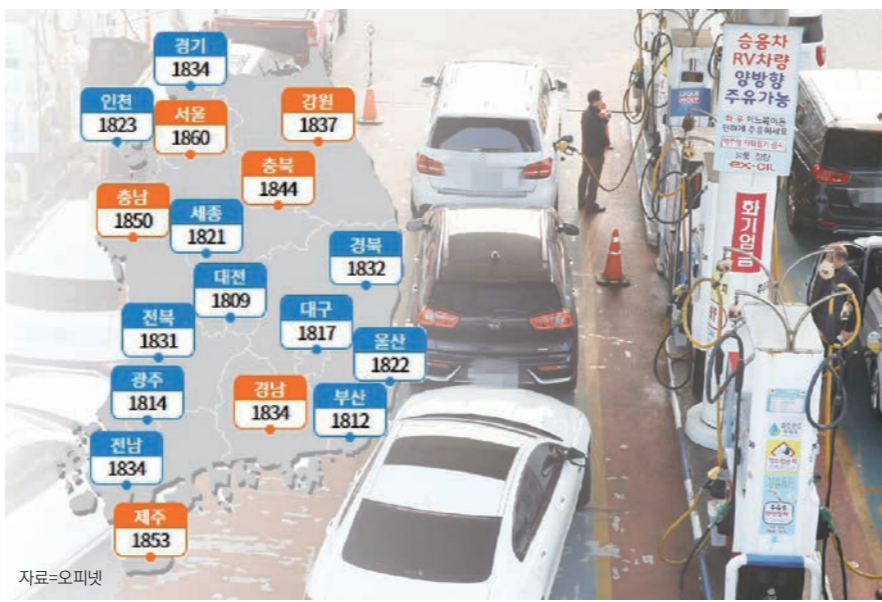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3일 L당 1864원에서 14일 L당 1845원으로 내린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등세가 꺾이며 1800원대에 안착하는 모양새다.

다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2월28일(전국 1696원서울 1752원)과 비교하면 아직 차이가 크다.

3월 1주 L당 휘발유 공급 가격은 전주 대비 149.9원 상승한 1766.1원이다. 2월 4주까지 L당 1600원 안팎에서 형성되던 휘발유 공급 가격이 전쟁 발발 이후 크게 상승했다.

자동차용 경유와 실내 등유의 경우 각각 L당 264.3원과 347.8원 올라 휘발유보다 상승 폭이 컸다.

정부는 13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가 설정한 1차 최고 가격은 L당 보통휘발유 1724원으로 11일 정유사 평균 공급 가격보다



자료=오픈넷

최고가가격제 시행 덕에 L당 1800원대 안착 공급가 109원 꺾였지만 체감 인하 폭 미미 하르그섬 폭격 파장... 2차 조정 때 급등 우려

109원 저렴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가격 인하 폭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이란 전쟁이 계속되며 국제유가 상승세 또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

내 유류 제품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유가는 미국이 이란의 대표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을 폭격한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6일 기준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직전 거래일인 13일 종가보다 1.5% 오른 배럴당 104.70달러를 기록했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2% 오른 배럴당 99.88달러였다. 서부텍사스산원유는 한때 배럴당 102.44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락했다. 또한 한국에 수입되는 두바이유의 경우 계속해서 배럴당 120달러 이상에 형성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근거로 사용되는 페트로나의 일일국제제품가격 자료를 살펴보면 배럴당 휘발유(95RON) 가격이 13일 기준 149.76달러까지 올랐다. 95RON 휘발유 가격은 11일 배럴당 129.17달러였다가 12일 143.44달러로 올랐다.

현재 적용된 최고가격제 적용 기간은 3월26일까지로 3월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고 가격을 조정한다.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석유 최고가격제 최고 가격 조정 시점에서 국내 유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준규 기자jgyang@skyedaily.com



현대차그룹, 주차로봇 활용한 EV6 주차시설.

현대자동차기아

## 주차로봇 도입 길 열린다

주차로봇 법적 지위, 기계식 주차장치로 명시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주차법 시행 규칙 개정안(입법예고)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행정예고)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주차로봇 규제 완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주차로봇은 2024년 6월20일 팍토리얼 성수 빌딩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시 주차로봇은 고객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때 지정된 장소로 꺼내주거나 지정된 장소에 차를 반납하면 자동으로 주차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얇고 넓은 형태의 로봇 한 쌍이 하부에 들어가 바퀴를 들어올려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두께 110mm로 어느 차량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로봇은 최고 초속 1.2m의 속도로 최대 2.2t의 차량까지 들어올릴 수 있었다.

빈 공간을 찾아 주차로봇이 자동으로 차량을 운반한다. 따라서 개정안으로 주차 로봇의 법적 지위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기존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도 있도록 했다.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을 주차로봇에게 맡긴다. 주차장 내에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어 차량을 더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다.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로봇 도입 주차장으로 옆 차량에 의해 문이 손상되는 문록 격벽과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둘러싸고 다니는 차량과 대치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으로 안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주차로봇 설치 주차장 설치 기준과 비상시 수동조작장치, 장애물감지 장치, 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는 주차장은 일반 보행자도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된다.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도난 등 범죄 발생 위험도 낮아질 수 있다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정재호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도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훈 기자 yhl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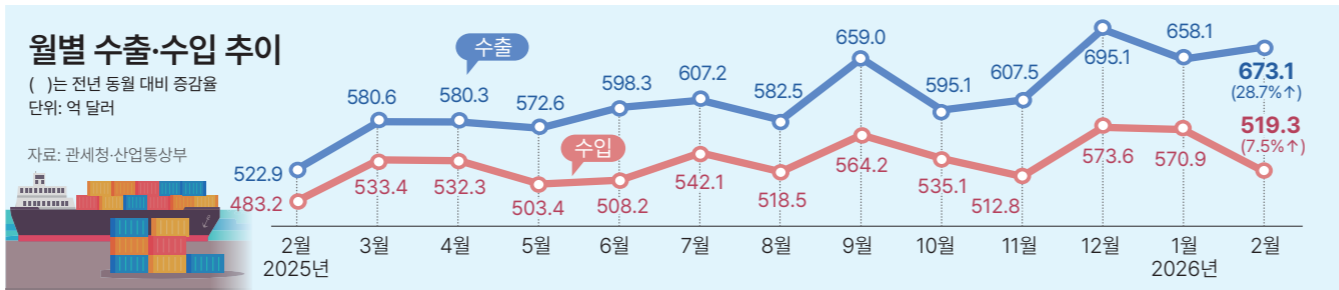
# 반도체 호조에 2월 수출 673억 달러... 9개월 연속 증가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 2월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역수지도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수출은 67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8.7% 증가했다. 이는 역대 2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같은 기간 수입은 519억 달러로 7.5%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15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7.9% 증가한 252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3개월 연속 월 2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선박과 정보통신 관련 품목도 증가했다. 선박 수출은 전년 대비 45.5% 늘어난 21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무선통신기기 수



반도체 수출 동월비 157.9% 급증... 수출 증가세 견인 소비·자본재 수입 확대... 무역수지 13개월 연속 흑자

출은 23.0% 증가한 1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일부 전통 제조업 품목은 감소세를 보였다. 승용차 수출은 45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9% 감소했으며 자동차 부품 역시 24.4% 줄었다. 석유제품 수출도 3.3% 감소한 37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주요 수출 시장 대부분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중국 수출은 127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1% 증가했고 미국 역시 127억1000만 달러로 28.5% 늘었다. 베트남은 23.9%, 유럽연합(EU)은 10.3%, 대만은 62.6% 증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 수출은 1.2% 감소했다.

수입은 소비재와 자본재 중심으로 증가했다. 소비재 수입은 전년 대비 13.6% 증가했고 자본재 수입도 16.7% 늘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72.8%), 제조용 장비(44.0%), 무선통신기기(81.6%) 등 생산 관련 품목 수입이 확대됐다.

반면 원자재 수입은 2.0% 감소했다. 원유 수입액은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11.4% 줄었고 원유 수입 단가는 배럴당 66.1달러로 전년 대비 19.2% 하락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다 쓴 글도 다시 보자

박재혁 지음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에  
에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 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다	쓴	글	도
다		시	
보		자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일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